

제233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과 답변(1문1답)내용입니다.



정 기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기현의원

●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 3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대전교육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점검해볼 사항은 없는지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안녕하세요?

● **정기현 의원** 저번에 해보니까 시간이 자꾸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형식 없이 그냥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처음 나오면서 교육감님, 저도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자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위원도 했는데요, 제가 교육혁신을 계속 부르짖으니까 교육감님 좀 불편하신 점도 있으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괜찮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기현 의원** 불편하시긴 한데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난 하반기 원구성 할 때도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도 막았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제가 교육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교육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과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발굴해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노력해왔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사할 때마다 교육청 각 부서에 제가 질의할 사항을 미리 사전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못해서 토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좀 불편했다면 토론하는 그 자체가 조금 불편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교육감님 처음 출마하실 때 가졌던 비전이 있으셨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이전 교육감님과 다르게 뭔가 해보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늘 교육감님 인사하실 때마다 저렇게 말씀하시곤 하시는데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 맞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정기현 의원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 ‘행복한 학생, 보람찬 스승, 만족한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가 봤더니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 등등 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혹시 이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교육감님 제시하실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항 보시면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다 아시겠지만 교육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시대에,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역량을 길러줘야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을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교과목부터 교과목의 내용과 방법, 포괄적인 교육과정은 학생 생활지도 까지 포함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역량을 기르는 데 예를 들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뭐한데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미래에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치중해서 그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대전만 하고 있는 교육과정,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하는 사업은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유·초·중·고·대학이 연계돼서 우리 아이들 역량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의 진로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설계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사실 교육을 심플하게, 현대적인 교육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길러서 진로교육을 잘해서 후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하고 싶은 직업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정기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다음에, 다 설명해도 될까요, 2, 3, 4, 5항?

◎ 정기현 의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교육을 얘기하시면 성과라고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성과가 따로 뚜렷하게 나온 게 있는지.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를 들어서 2번 항에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과학적인 마인드 이런 모든 것을 길러 주기 위해서, 또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일본은 노벨과학상이 22명입니다. 물리학상하고 화학상하고 생리학상이 22명인데 우리는 단 1명도 없어요.

그런데 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이게 어떤 과정을 한다가 아니고.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그런 것들이.

● **정기현 의원** 뭘 했더니 3년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이런 것을 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도 아이들이 가서 많이 현장실습을 해서 금년도 41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유성생과고, 충남기계공고, 대전공고, 대전여상 아이들이 가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인데 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해서 2016년도에는 인센티브를 70억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 투입돼서 교육력 강화, 학생 교육 지도에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고 Wee센터에서 최우수교육청 2년 연속 선정되고 특히,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업인데 에듀힐링센터를 해서 교육부 정부3.0우수경진대회

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뭐, 제가 같은 교육가족과 대전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전만큼 최고의 성과를 낸 교육청이 없습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 **정기현 의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데요,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즉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에듀힐링도 있고요, 메니페스토실천본부 교육감 공약이행 최우수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박근혜 정부는 최근 30여 년 동안의 정부 중에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었던 교육부는 무용론, 폐지론까지 비등했던 거였고요, 그렇지요?

그런 교육부로부터 우수교육청이라고 선정받은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명예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세우기가 조금 불편한 지표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님 그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 같고요.

교육감 공약이행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제시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입장에 따라서는 이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우수하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또 3년을 되돌아보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공약 84% 이행했다고 했는데 교육단체에서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일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육감님의 빛과 그림자 중에 빛을 내세웠다면 3년 동안 되돌아봐서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사안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대전국제중 · 고등학교 갈등으로 허송세월한 대전교육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문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동문과 주민들 간의 대립격화 이런 부분으로 유무형의 손실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의회에서 국제고 전환이 무산됐습니다만, 그리고 이후에 국제중 · 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하겠다고 해서 추진하시다가 교육부에서 다시 재검토 난 게 올 봄입니다, 그렇지요?

2년 반 동안 사실 이룬 것 없이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고요.

시민사회, 특정 동문 내에서 있었던 갈등, 반목 이런 것들까지 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국제고는 현재 다 아시겠지만 늘상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있고 외국인이 있고 카이스트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외교, 자사고, 국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 **정기현 의원** 새 정부가, 잠깐만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대전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절충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 **정기현 의원** 앞으로도 계속, 잠깐만요, 앞으로도 계속 더 행정력 낭비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교육적인 효과로 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다.

● **정기현 의원** 새 정부와 의회하교의 마찰까지 감수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토론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점검해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면 말씀하시고요.

2017년 8월, 한 달 전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을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끝내 숨겨, 지역초교 엉터리 석면철거 논란, 양젓물 세제로 밥솥 닦은 초등학교 논란, 학부모발 소송 빈발 요지경 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전교육을 다 설명하진 못하지만 일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다시 다른 측면으로 가면 사립학교 비리로 얼룩진 대전교육,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이나 대성학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4명 구속, 21명 불구속되는 이런 사태, 14명의 교사가 임용취소되는 이런 사태를 낳았고요.

사립고등학교라면 모두 한번쯤은 해봤을 성적조작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성적조작을 통해서 교육의 불신을 낳았던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도 또 그냥 잊을 수 없는 겁니다, 1년간 눈물로 얼룩진 예지중·고 사태.

이 부분도 1년 동안 충분히 초기에 잘 대응하고 과정에 행정지도를 원만하게 잘 했으면 전 교장 겸 이사장이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결과는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비록 지금은 정상화됐지만 그 과정에 교육청이 했던 역량, 리더십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짚어봐야 되겠지요, 부실급식 대전교육.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예지중·고와 대성학원 비리 문제 등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중앙뉴스에 늘 올랐던 내용입니다.

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전현직 교장 등 중징계, 봉산초에 이어 대덕고도 불량급식 파문, 아주 유명세를 탔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급식비리, 담합 문제, 그리고 양젓물로 밥솥 닦은 초등학교 논란,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급식의 현 실태입니다.

반복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복 여부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과 대전교육, 이 부분도 중학생 예와 고등학생 예를 했습니다만 늘 나오는 것은 학교는 감추기 급급하다, 학부모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성폭력과 대전 교육, 몇 달 전에 여교사 수업 중에 중학생 집단음란행위 문제, 그리고 두 달 전에 사립고 교사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으로 직위해제, 여교사 88% 시대 이 교사들에 대한 성적 보호,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문제 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송촌동에 있는 모 중학교 성폭력 피해 여중생이 자살한 문제, 이걸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습단계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교육감님 면담하고 나와서 소통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와 공감을 전제로 한 교육감님의 소통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지표입니다, 청소년 자살과 대전교육.

대전 청소년 스트레스 · 우울증 높다, 요즘 무서운 10대 청소년 잔혹범죄 백태, 이 부분은 소년법 개정하자는 여론까지 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들한테만 책임을 돌려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2015년 성적비관한 여중생 투신, 그리고 2015년 3월 대전여고가 아니라 대전에 있는 여고생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2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송촌 모 여중생이 그랬고요.

청소년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청소년 자살 문제를 전국과 비교해봤더니,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입니다, 10대 초반 10세부터 14세까지 보니까 전국은 2015년 기준으로 자살률이 10만 명당 1.2명인데 대전은 2.4명으로 2배입니다.

2015년만 그런 게 아니라 즉 2배에 가깝고요.

15세부터 19세까지는 2015년 기준으로 6.5명이 전국지표인데 대전은 9.4명 해서 1.5배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 자살은 1.5배에서 2배로 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살원인의 1위는 우울증이라고 진단 많이 하고 있고요.

WHO에서는 세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인데 한국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9년 연속이고요, 암의 2.5배이고요, 그리고 학업과 가정 스트레스로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대전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를 한 청소년 실태조사입니다.

1,129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각 구청별로 인구비례해서 청소년들을, 학교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없습니다.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를 볼 때 여기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게 대전은 52.6%, 전국은 31.2%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우울증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도 1.5배 이상 대전이 높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자살률 또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의 원인별 스트레스를 보면 학업 문제가 64.9%, 복수응답입니다, 그리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54.3%, 그다음에 외모·신체조건, 그다음에 또래와의 관계 등 해서 스트레스가 주로 학업 문제와 진로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지표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교육감님은 처음 시작할 때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3년 전보다 더 행복 해졌을까요? 모르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현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답변드릴까요?



오해가 있으실 것 같고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영상에 띄웠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면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돼서 현장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은 석면 철거를 위해서 34개교 공사를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최고의 환경을 조성시켜주기 위해서. 문제가 석면이 발견됐다고 한 학교를 직접 나가 봤습니다.

그게 컴퓨터실이었습니다.

석면공사를 하려면 석면이 떨어지니까 바닥이나 이런 데 전부 비닐을 깔고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석면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 하면 컴퓨터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큰 에어컨이 있는데 천장 밑에 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위에 석면가루가 조그만 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모 학부모님이 제가 듣기로는 발견해서 환경시민단체에 그걸 석면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석면 철거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큰일 났구나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과정, 잔재처리과정에서 묻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도 거기뿐 아니라 바닥에 혹시 떨어진 것이 있나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있어서 석면공사를 한 쪽을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 아셔야, 의원님께서도 아셔야 이런 것들이…….

◎ **정기현 의원** 모든 사안들을 지금 다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자료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 **정기현 의원** 자료가 아니고…….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 자료에 영상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답변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당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젓물이라고 하는데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그것을 5% 미만을 써서, 오븐클리너로 바닥청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현장도 저희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폭로를 한 조리원이 누구냐 하면 1년 전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조리원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전에 본인이 오븐클리너, 5% 수산화나트륨으로 국솥도 이렇게 했다 했는데 현재 그쪽을 가보니까, 거기 영양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쓰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주 굉장히 억울하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과정에 의해서 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해석이 되기 때문에…….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감사결과로 말씀하시고요.

감사결과로 말씀하시고…….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학교에서 불안해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시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가게 되면, 제가 이런 설명말씀을 안 드리면 괜한 오해나 또 불안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십시오.

● **정기현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리고 대성학원 채용비리 문제는 법적인 절차 하나 어긴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정상대로 추진했습니다.

규정대로 해서 하나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예지 재단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학도들이 공부하시는 데 환경을 더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이사취임승인 취소한 것이 가장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일반 사립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인정이 되어서.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거기까지 중단해 주시고요. 시간이…….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정기현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됐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원만히 해결되어서, 특위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리고 성폭력 여중생 피해 이런 문제들도.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간에.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일반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여기에서 제가 평가를, 결론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다만 공감하고 지나온 3년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있었으면 교육감님하고 이런 불편한 대화 안 해도 됩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해도 되는데, 제가 예결위원을 계속하고자 했던 것도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점검만 하자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 시간을 자꾸 뺏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3년 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졌을까라는 물음은 제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행복해졌다, 불행해졌다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그래서 향후 중점과제, 추진과제를 교육청에서 보내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추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초·중등 교육분야현장 안착 지원, 이 부분은 보니까 초·중등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으로 다 이관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준비의 뜻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부분과 되풀이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아닌가, 문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죽 짚어봤지만 행복한 학생, 희망의 대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교육이 가야 할 길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교육혁신,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혁신, 이 중에 짚어봐야 할 대목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게 ‘한국 학생은 없어질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공부한다.’ 고 진단하고 있고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데 학생의 시험을 금지해야 되고 평가, 줄 세우는 것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지금 있는 직업을 위해서 공부해봐야 우리 아이들 미래에는 그 직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식교육에서 역량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공감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2년간 총 10개교를 선정했습니다.

1기, 2기, 10개교 했고요, 그리고 3기인 내년부터 할 학교는 목표는 5개였는데 4개 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혁신학교가 혁신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들이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내용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해서 앞으로 내용 중심으로 가겠다, 무조건 신청하면 5개 다 채운다,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의 끝에 4개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보고 들으셨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또 교육청에서는 교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혁신 인식제고를 위해서 연수·컨설팅과 자료를 개발 보급했고,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했고, 혁신학교 포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위원입니다.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얼마나 구축됐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창의인재 씨앗학교 중점과제 구현했다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수업 혁신,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정착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됐다고 교육감님 보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기현 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향후계획으로는 홍보 강화를 통한 교육혁신 공감대 확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교육혁신이 될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는, 평가하기는 그렇고 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휴대폰 모바일 조사,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저 비용으로 했는데요.

학부모와 혁신학교 학부모, 교사, 혁신학교 교사, 대전시민 등 해서 6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구비례나 분포 다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추세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전에도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 76%로 나타났는데 현재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니깐 34%밖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라고 물었더니 19%만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데 비해서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뭐냐고 물으니까, 복수응답을 하니까 교사의 업무경감 체제와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습니다, 57%.

리더십과 의사결정구조 등에서 민주적 학교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49%, 절반에 가까운.

그리고 학생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30% 해서 1, 2, 3순위로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져야지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술형 응답을 봐도, 636명이 했는데 242명이 구구절절이 써놓은 서술형 응답입니다. 전시성 행정 지양해 달라, 가장 많고요.

학교 내 제도·문화 개선해 달라, 교사업무 경감해 달라, 교육청을 혁신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혁신학교 홍보를 강화해서 공감대를 넓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는 혁신학교의 문제점은 혁신학교를 홍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무관심하시거나 혁신학교의 교육혁신 내용이 콘텐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홍보예산 많이 반영됐습니다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혁신학교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업무경감이 없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 위기가, 학생이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 따먹기용으로 하다 보니까 교사들은 교장이 하자는 대로 비자발적으로 교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혁신학교의 방향을 보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은 혁신학교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의지가 분명하셔야 되고 혁신학교 희망교사와 교장을 서로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 때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사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상황에서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업무 대폭 경감방안이 필요하고요.

자율학교 지정해서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교육혁신에 대한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학교중단 학생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대전과 전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5년간 해보니까 학교중단율, 이것은 학업중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교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입니다. 대전은 2016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1,657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거고요.

이 중에 부적응 등 중단 학생 수, 그러니까 해외 유학하거나 해외 출국을 통해 가는 아이들 빼고 하면 그래도 1,100명 가까운 아이가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4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학업중단숙려 제도를 운영하고부터 일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전은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높게 학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적응 등 중단 학생도 대전이 2015년도 0.54%인데 전국은 0.41%입니다.

이것도 대전의 중단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님?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중단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하고 살펴보니 6년 동안 매년 2,8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학생 수는 2017년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3,7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2개 기관에 검정고시반이나 예술활동,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1년에 유학 가는 아이들 빼고 1,10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50명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100명이 이탈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5년 동안 따지면 5천 명이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초·중·고등학교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 밖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게 50명, 3,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은 일반고의 2.5배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폭 가해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자는 게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학교중단이 학업중단으로 되지 않도록, 학교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 학업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학교중단 학생의 1차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책임 있지요.

● **정기현 의원**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가지듯이 학교중단 학생들의 1차 책임은 교육청과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가정을 떠난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지원을 못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때는 그 아이가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지원해야 될 것이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지원해 주는 게 부모 심정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비록 떠났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그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지, 학업이 더 필요한지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 모든 것,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야지요.

● **정기현 의원**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학교 밖 청소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 **정기현 의원** 지금 50명에 3,700만 원인데 그것으로, 5천 명에 대한 1%도 되지 않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현재 2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0만 원씩 3,700인데 앞으로 지원기관을 더 확장시키는 것,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현 의원** 늘리는 부분, 반드시 늘려주시면 좋겠고 감사드리고요.

학교중단 학생의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취학·학교중단 학생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 의무교육 대상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의무교육 대상 학생이더라도 우리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아이들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업의 끈을 놓아버리면 폭력이나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안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마을학교 설립을 지원해야 되고 시청과 함께, 시청에서는 돌봄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돌봄 지원과 함께 교육청의 교육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정기현 의원** 교육청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세입결산 기준인데요.

2014년에 결산해 보니까 1조 7,571억이고 2015년에 1조 7,770억, 그런데 작년 결산해 보니까 1조 8,461억, 올해 2차 추경이 꿈의 우리 교육청 예산 2조를 돌파했습니다,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 **정기현 의원** 그런데 2017년 결산을 추정해 보니까 2조 5백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하면 한 2천억 정도 증가했구요, 2015년 대비해서는 한 3천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은 전부 재량사업비를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경비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정기현 의원** 그래서 늘어난 예산 여러 군데 투입할 데가 많겠지만 학교 학생복지 그리고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폭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중단 학생들도 우리가 돌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